

대형마트는 블랙홀

(상) 지역 자본 역외유출 심각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들이 앞다퉁 지방으로 진출, 전국이 '대형마트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다.

넓직한 매장, 24시간 영업, 저가상품, 넓은 주차공간 등으로 무장한 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은 물론 동네 구멍가게 등 '밀비단 경제'를 집어삼키면서 지역경제발전이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블랙홀'로 빨려들어간 지역자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차단하는 등

자금역외유출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의 지역상품 이용 비율을 더 높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기에 마련, 대형마트에 빼앗긴 고객들을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이어야만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지방진출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고객잡아야 새는돈줄 막는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3월 현재 대구지역에 진출, 영업 중인 대형마트 수는 17곳에 달한다.

토종기업이 운영하는 1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지업체들이다.

각각 8개, 4개의 점포가 진출해 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양강구도는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굳어지는 추세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진출해 있는 대형마트의 매출액 규모는 지난 1998년 3천729억8천700만원에서 지난해 1조4천158억1천500만원으로 8년 새 280% 급증했다. <도표 참조>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형마트 1곳당 평균 883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셈이다.

문제는 외지업체가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상품구입 대금결제 등의 명목으로 고스란히 역외로 유출, 지역경제발전에도움이 되기는 커녕 심각한 악영향만 주고 있다는 것.

계명대 권업 교수(경영학과)는 "우후죽순처럼 들이닥친 대형마트들이 지역자금을 고갈시키고 돈가뭄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 기업체의 자금사정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채용된 직원은 정규직보다 비정규·계약직이 대부분이다.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구지역 진출 업체 17곳 토종기업 운영 단 1곳

작년 매출액 1조4천158억 8년새 280%나 급증

추가 진출 막고 재래시장 통해 경쟁관계 유지해야

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가게 소비마저 위축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엄청난 타격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윤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데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히 지역상품의 이용비율도 고작 10%선에 머물고 있으며, 광고 전단지 찍어내는 일도 본사에서 이뤄져 실질적인 지역환원은 극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대안은 없는가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지역진출로 인한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과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의 추가 진출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비율을 극대화시켜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 규제가 어려운 만큼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대형마트에 빼앗긴 고객들을 다시 재래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권업 교수는 "외지 대형마트들이 현재 10%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지역상품 이용비율은 생생내기에 불과하다"면서 "대형마트들이 지역발전과 함께 동반성장을 원한다면 지역상품의 이용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또 "재래시장이 외지 대형마트와 대등한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기대기자

saku@idaegu.com

